



실패한 유머에 관한 내러티브 리뷰

김솔 (효행초등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ember 4, 2024

Revised: March 29, 2025

Accepted: April 21, 2025

Sol Kim

Teacher, Hyohaeng Elementary School

Tel: (031) 224-2690

E-mail: solkim@hyohaeng.es.kr

ABSTRACT

Kim, Sol. 2025. A narrative review of failed humor.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5, 598-61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of failed humor in various conversational contexts. Applying a narrative review, the study addresses a gap in humor research where unsuccessful humor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Drawing on theoretical frameworks such as superiority theory, relief theory, incongruity theory, and extended relevance theory, the study defines failed humor and discusses its characteristics. It examin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its disruptiveness and presents a typology of failed humor within a revised framework consisting of three analytical layers: triggers, speaker, and hearer. Moreover, this study explores how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group solidarity, status hierarchies, and gender, affect the failure of humor among interlocutors. It further analyzes the responses to failed humor from both the listener and speaker perspectives. By providing a multi-layered theoretical framework, this research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discourse dynamics of humor and its implications in everyday interactions, offering valuable insights into the field of failed humor research.

KEYWORDS

failed humor, discourse, social relationships, response, narrative review

1. 서론

유머는 일상에서 종종 나타나는 화행으로, 성공적인 유머는 청자의 웃음이나 미소를 유발한다(Norrick 2003).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유머는 대화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데 기여한다(Holmes 2006, Wanzler et al. 2010). 그러나 유머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격적인 유머는 대화자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Bitterly et al. 2017, Holmes 2000, Holmes and Marra 2002). 이처럼 유머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화행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왜 특정한 유머에 웃는지 혹은 웃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월성 이론, 이완 이론, 부조화 이론, 확장된 관련성 이론 등 여러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Attardo 2008, Meyer 2000, Raskin 1985).

유머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넘어 유머 발화를 인식(recognition), 이해(understanding), 수용(appreciation), 동의(agreement)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Hay 2001).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실패하면 유머는 화자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로 모든 단계를 완벽히 이해하더라도 대화자 간의 관계에 따라 유머는 실패할 수 있다(Platow et al. 2005, Priego-Valverde 2020, 2022). 유머에 대한 반응은 청자가 화자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행동이기 때문이다(Ruiz-Gurillo 2021). 따라서 대화에서 유머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화자나 청자의 부족한 유머 감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화자와 청자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 유머를 수행하는 방식(performance), 상황적 맥락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Norrick 2004). 또한, 유머가 지니는 이중 메시지(double-voicing)는 청자가 농담의 경계와 화자의 실제 의도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Priego-Valverde 2009). 이는 외국어로 된 유머를 이해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Bell과 Attardo(2010)는 제2 언어에 능통한 학습자라도 목표 언어의 유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실패한 유머’란 무엇일까? Priego-Valverde(2022)에 따르면 실패한 유머는 전체 유머의 약 19%에 달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실패한 유머에 대한 정의로 널리 인용되는 Hay(2001)와 Bell(2015)을 살펴보면, Hay(2001)는 실패한 유머를 청자가 유머 의도를 인지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설령 내용을 파악하였더라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발화로 규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ell(2015)은 화자가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로 시도했으나, 대화 상대나 환경적 요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발화를 실패한 유머로 정의하였다. 또한 Bell(2015)은 비언어적 유머나 아동의 유머, 그리고 당시에는 성공적이라 여겨졌으나 이후 실패로 판명된 유머를 이 연구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국외에서는 실패한 유머에 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친구들 간의 대화(Ducheneaut and Moore 2005), 비원어민과 원어민 간 일상 대화(Bell and Attardo 2010), 영화 장면 분석(Bogdan 2014), 스포츠 선수 및 코치의 공식 인터뷰(File and Schnurr 2019), 서로 다른 국적을 지닌 사람들 간 대화(Oesterle and Schwab 2024, Ruiz-Gurillo 2021) 등에서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가까운 지인처럼 사회적 거리가 짧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패한 유머에 대한 연구(Priego-Valverde 2020,

2022)와 지위, 성별 등의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Evans et al. 2019, Miron-Spektor et al. 2022, Platow et al. 2005).

반면, 국내에서는 실패한 유머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리뷰(narrative review)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한 실패한 유머를 원인, 화자 간 관계, 후속 반응의 세 가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패한 유머가 지니는 담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Knopf 2006). 내러티브 리뷰는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처럼 엄격한 데이터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면, 연구자가 특정한 맥락 내에서 문헌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통찰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khera 2022).

본 연구에서는 실패한 유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Google Scholar에서 ‘failed humor’, ‘humor failure’, ‘unsuccessful jokes’, ‘miscommunication in humor’ 등의 키워드로 관련 논문과 학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 주제와 밀접한 자료를 선별하였으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평가(peer-reviewed) 논문을 우선 포함하였다. 아울러, 참고문헌 인용 추적(backward citation tracking) 기법으로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논문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해당 기간 내 관련 문헌이 부족할 경우 그 이전의 연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머 이론을 바탕으로 ‘실패한 유머’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유머 실패가 발생하는 여러 의사소통 상황과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실패한 유머의 원인을 분석하고, 화자와 청자의 반응을 논의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한 유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유머 이론과 실패한 유머 확인

2.1 우월성 이론

우월성 이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머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한 이론이다(Attardo 2008). 이 관점에 따르면 유머는 타인 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월감에서 비롯된다(Meyer 2000). 예를 들어,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유머의 대상으로 농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롱하거나, 심지어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안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유머에는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수반된다. 이러한 우월감은 웃음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며 잘못된 행동을 향해 웃음으로써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게 된다(Bell 2015).

이와 관련하여 Bergson(2008)은 타인을 희생시키는 웃음이 일종의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놀림에는 현실에 대한 일정한 진실이 반영되며 사회적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Holmes and Marra 2002, Norrick 2003). 누군가의 특정한 습관을 놀림으로써 화자는 덜 직접적이고 덜 위협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제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Bergson(2008)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패한 유머란

목표하는 대상의 행동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한 유머라고 할 수 있다.

우월성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재미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유머는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상대와 주고받는 재미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말장난(pun, wordplay)과 같이 특정한 대상이 없는 유머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월성 이론은 특정한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꼬며 우월감을 느끼는 일부 유머 유형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실패한 유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2 이완 이론

이완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유머를 설명한다(Meyer 2000). 긴장하거나 과도하게 예민해진 정신적 에너지가 유머를 통해 웃음이라는 형태로 방출되면서 이완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Freud(1960)에 따르면 유머는 사회문화적으로 금기시된 요소를 극복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 Norrick(2003)은 우리가 선택하는 농담의 주제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공격성이나 성적 욕구와 같은 욕망을 억누르게 된다. 이러한 억눌린 감정적 에너지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표출되지 않고, 농담이나 내러티브 속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완 이론에 따르면, 청자는 유머를 접하면서 긴장된 상태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농담의 핵심 구절(punchline)이나 예상치 못한 결말을 통해 이 응축된 에너지를 웃음으로 방출하게 된다.

Bell(2015)은 이완 이론의 관점에서 유머가 실패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청자의 욕망이 이미 억압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었을 때이다. 예를 들어, 청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 주제와 관련한 유머는 기대하는 웃음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Bell과 Pomerantz(2016)는 청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주제의 유머에서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머가 실패하는 두 번째 조건은 청자가 웃음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할 만큼 충분한 정서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유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유머가 실패하는 원인은 화자에게 있다.

결론적으로, 이완 이론은 유머를 억눌린 감정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웃음을 통한 에너지 발산 메커니즘과 유머 실패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우월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완 이론 역시 모든 유머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3 부조화 이론

부조화 이론은 칸트와 쇼펜하우어가 유머에 대해 언급한 발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요소가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때 웃음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Raskin(1985)의 'Semantic Script Theory'와 Attardo와 Raskin(1991)의 'General

Theory of Verbal Humor (GTVH)’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스크립트(script)란 스키마(schema)와 유사하게 단어와 관련된 의미 정보를 담은 집합체를 의미한다.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유머에는 서로 다른 정보를 담은 여러 스크립트가 존재한다.

부조화 이론은 유머가 발생하는 원인을 대화자 요인보다는 유머 자체에 내포된 상반된 의미에 두고 있다(Norrick 2003). 즉, 유머는 우리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거나 맥락에 부적절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유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조화 요소가 필요하며, 부조화가 전혀 없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유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에서는 부조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황설수설하거나 무의미한 긴 농담(shaggy dog story)’에서도 일부 개인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부조화가 개인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각기 다르게 인지되기 때문이다.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가 유머러스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화자가 의사소통 방식을 ‘농담 모드(non-bona-fide communication, NBFC)’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놀이 프레임(play frame)을 형성하며, 농담 텍스트는 대개 두 개의 중첩되거나 상반되는 스크립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중은 한 가지 스크립트로 텍스트를 해석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다른 스크립트가 활성화될 때 두 스크립트 간의 대립(script opposition)이 드러나면서 유머가 발생한다(Raskin 1985). Raskin(1985)은 농담을 ‘진지하지 않은 의사소통(NBFC)’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Grice(1975)가 협력 원칙(cooperative principle)에서 제시한 ‘진지한 의사소통(bona-fide communication, BFC)’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협력 원칙은 대화 참여자들이 정보의 양, 질, 관계, 방식 네 가지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보장하지만 NBFC에서는 이 격률이 의도적으로 비껴간다. 즉, 성공적인 유머는 발화자가 NBFC 규범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청자도 유머적 맥락을 인식하여 두 개의 상반된 스크립트를 동시에 활성화할 때 완성된다. 반면, 청자가 여전히 BFC 틀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발화자가 NBFC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신호하지 않으면, 대화 참여자 간의 모드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머가 실패하게 된다. 즉,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 해석 틀(cooperative interpretive framework)’이 무너질 때 유머가 실패한다는 것이다(Raskin 1985).

Bell(2015)은 부조화 이론의 관점에서 유머가 실패하는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농담 모드로 전환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상반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스크립트의 수가 부족한 경우이다. 셋째, 스크립트 간의 반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경우이다. 첫 번째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지한 성향을 보여 대화 중 장난스러운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거나, 소수의 대상에만 재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개인의 경험과 인지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며, 각자가 보유한 스키마와 스크립트의 성격에 따라 유머 사용이 배제되거나 촉진될 수 있다.

한편, Wanzer 외(2010)는 부조화 이론을 교실 상황에 적용하여 유머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교사가 교실에서 유머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부조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교사의 유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학생들이 부조화를 인식하더라도 그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로 이 두 가지는 유머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학생들이 교사의 유머를 제대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2.4 기타 이론

Zuo(2020)는 불일치로 인하여 유머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불일치가 반드시 유머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기존의 유머 불일치 해결(incongruity-resolution) 모델이 정보적 부조화가 정서적 유머 효과를 유발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유머의 성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자가 정서적 차원에서 이를 유머로 인식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녀는 확장된 관련성 이론(extended relevance theory)을 적용하였다.

확장된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화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자의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포함할 수 있다. 유머는 이러한 감정적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사례로, 그 수용 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정보적 이해(informative) 단계로, 청자는 발화의 명시적 의미(explicature)와 맥락적 전제(implicated premises)를 토대로 화자의 정보적 의도를 파악한다. 두 번째는 감정적 해석(emotive) 단계로, 불일치 해결 과정에서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어 청자가 이를 유머로 인식하거나 다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머가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보적 이해 단계에서 유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청자가 발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감정적 해석 단계에서 불일치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유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으로, 맥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발생한다. 셋째, 청자의 개인적 경험과 기대가 유머 수용에 영향을 미쳐 동일한 농담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유머 실패는 단순한 의미 전달 오류가 아니라 청자의 기대, 배경지식, 그리고 감정적 해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권력, 성별, 사회적 거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유머 실패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유머의 실패는 여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Bogdan(2014)은 Brown과 Levinson(1987)의 예의 이론(politeness theory)에 비추어 유머가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여 적절히 표현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반면,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가 포함되면 실패할 위험이 커지며, 특히 상대방이 조롱당하거나 사회적 위신이 손상될 위험을 인지할 때 그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Culpeper 외(2003)의 무례함 이론(impoliteness theory)과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머가 공격적이거나 비꼬는 방식으로 전달될 때 상대방은 이를 무례하다고 받아들여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유머의 성공 여부는 불일치를 해결하는 과정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예의 전략의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의사소통과 유머의 실패

3.1 실패한 유머 정의 및 특성

Hay(2001)는 자연스러운 대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대화적 함축(implicatures)을 제시하였다. 네 단계는 유머러스한 대화 프레임의 인식, 유머 내용의 이해, 유머에 대한 수용, 유머 메시지에 대한 동의이다. Hay(2001)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유머가 실패한다고 보았다. 만약 청자가 유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미있다고 평가하지 않거나, 유머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머는 실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친구들이 한 친구의 농담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면 이는 실패한 유머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heikan(202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시간 대화에서는 이 네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웃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반드시 완전한 이해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네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더라도 유머가 성공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Bell(2015)은 실패한 유머가 복잡하고 다층적인(multifaceted) 현상으로 실패한 유머를 식별하는 것이 까다롭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한 운율적 특성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유머 발화가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고, 다른 경우에는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머의 실패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유머의 실패 정도는 다양하며 화용론적 실패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실패한 유머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연구자들은 주로 청자의 반응에 근거하여 유머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 왔다. Attardo(2008)는 웃음이라는 전형적인 유머 신호가 실패한 유머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Hay(2001)는 실패한 유머를 ‘청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unsupported) 유머’라고 보았다. Bell(2009b, 2015)은 ‘유머로 인식되고 이해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발화’로 정의하였다. Priego-Valverde(2009)는 실패한 유머를 청자의 관점에서 ‘인지되지 않은 유머(unperceived humor)’와 ‘인지되었으나 거부된 유머(rejected humor)’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화자의 과장된 표현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자의 유머를 단순한 진술로 오해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상대가 유머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흐름을 유지하려거나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여겨 농담을 거부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한편, Bogdan(2014)은 미국 영화(Meet the Fockers)에 나타난 18건의 실패한 유머 사례를 분석하여 Priego-Valverde(2009)와 동일한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분류하는 기준과 개념적 접근에는 차이가 있다. Priego-Valverde(2009)는 Bakhtin의 ‘이중 발화(double-voicing)’ 개념을 적용하여, 하나의 발화 내에 내포된 두 가지 메시지를 청자가 인지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반면, Bogdan(2014)은 청자의 반응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또한, Priego-Valverde(2009)는 실패한 유머가 대화 단절과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임을 밝혀낸 반면에, Bogdan(2014)은 실패한 유머가 때로는 대화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연구 모두 실패한 유머가 화자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머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와 사회적 맥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File과 Schnurr(2019)는 기존 연구들이 유머의 성공과 실패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다고 비판하며 동일한 유머라도 일부 청중에게는 성공적일 수 있지만 다른 청중에게는 실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스포츠 선수와 코치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대화의 맥락 및 청자(인터뷰 진행자, 팬, 다른 팀 팬)에 따라 동일한 유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수용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유머의 실패를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Priego-Valverde(2022)도 유머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기보다 대화자 간의 지속적인 프레임 전환(frame shifting)과 맥락적 조율 과정과 깊이 연관된 현상으로 보았다. 그녀는 8시간 분량의 프랑스어 대화를 분석한 결과, 실패한 유머가 대화를 방해(disruptiveness)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자의 반응(웃음, 동조, 무시, 거부 등)을 기준으로 유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전체 1,345건 중 259건(약 19%)이 실패한 유머로 분류되었다. 특히 앞서 진행 중인 대화에서 청자가 갑자기 유머를 시도할 때 실패한 유머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머러스한 맥락보다는 진지한 맥락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Priego-Valverde(2022)는 실패한 유머를 대화의 주제와 맞지 않는 불일치(disalignment)와 대화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비동조(disaffiliation)의 두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한 화자가 유머를 시도했을 때 청자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무시하면 유머가 실패하게 되며, 대화의 프레임이 진지한 상태에서 다른 화자가 화제를 전환할 때도 유머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유머 발생 빈도가 대화자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자의 성별이나 지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실패한 유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유머를 완벽하게 식별하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중에 나타나는 특정 단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Attardo 2008, Holmes 2000). 예를 들어, Cook(2000)이 language play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언어 형식(linguistic form), 의미(semantics) 및 화용(pragmatics)의 요소들이 유머 혹은 실패한 유머의 표지자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s)를 파악하는 것도 유머의 존재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유머가 발화된 이후 화자가 말을 더듬거나 짧은 침묵에 빠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ell 2015).

실패한 유머는 청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청자는 실패한 유머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보이거나 농담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청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화자는 이전 발화가 농담이었음을 밝히거나 또 다른 유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편견으로 인하여 실패한 유머의 사례가 간과되거나, 청자가 솔직한 반응 대신 꾸며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상호작용 맥락에 따른 청자의 반응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Priego-Valverde 2020).

3.2 유머의 실패 원인

Bell(2015)은 자신의 저서에서 Kaur(2011)¹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어민 간 대화에서의 유머

¹ Kaur(2011)은 영어를 매개로 한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언어적 또는 문화적 요인보다는 화자의 발화에 내재된 모호성(ambiguity), 잘못 듣는 현상(mishearing), 그리고 대화자들이 보유한 세계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있으며, 일례로

실패와 비원어민이 포함된 대화에서의 유머 실패는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단지 특정 유형에서 양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ell과 Attardo(2010)가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을 갖춘 비원어민 국제 대학원생들이 일상 대화 중 원어민 유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단어의 의미나 내포된 함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원어민처럼 빠르게 말하지 못해 유머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원어민과 유머러스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제2언어 능력 및 목표 문화에 대한 화용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Kaur(2011)가 말한 세계 지식(world knowledge)이 언어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어민의 유머 실패와 비원어민의 유머 실패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Bell과 Attardo(2010)는 비원어민이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겪은 유머의 실패를 단계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는 참여자들의 자기 보고(self-report)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실패 원인을 청자 관점에서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유머가 실패하는 이유에는 화자의 수행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Bell(2015)은 기존 구조를 확장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유머 실패 단계를 포괄적으로 재구성하고, 실패 원인 분석에 청자뿐 아니라 화자 요인을 포함하였다(표 1 참조).

Bell(2015)이 제시한 첫 번째 단계는 발화자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청자가 해당 발화를 정확히 듣지 못하는 등, 물리적·신체적 요인에 의한 실패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변 환경의 소음 등 언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는 언어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음운, 형태, 통사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언어적 능력 및 수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화자가 올바른 언어 형태를 인식하지 못해 말실수를 범하거나, 청자가 언어적 지식이 부족하여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는 다의어나 중의적 표현 등 모호함과 관련된 문제이다. 화자가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유머를 유도하려 할 때, 청자가 그 모호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유머는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화자가 중의적인 의미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청자가 발화에 내포된 모호성을 파악하여 이를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네 번째 단계는 발화에 수반되는 행위와 효과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머가 실패하는 경우이다. 청자가 발화의 표면적 의미는 이해하더라도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유머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화자가 아이러니가 섞인 미묘한 칭찬이나 농담을 건넸을 때, 오히려 청자로부터 진지한 반응을 끌어내 유머 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태에 의해 유머가 실패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knock-knock’ 농담은 “knock, knock”으로 시작해야 하며, 수수께끼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해야 유머라는 점을 청자가 인지할 수 있다. 만약 화자가 이러한 형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청자가 그 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유머러스한 대화 구조를 나타내는 적절한 맥락화 단서가 중요하다. 화자는 유머를 시도할 때, 해당 발화가 농담임을 청자에게 알리는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청자가 이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해 농담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단서를 오해하여 진지한 발언을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인다면 유머는 실패하게 된다.

Ladilova와 Schröder(2022)는 화자 간 문화적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유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표 1. 실패한 유머의 단계에서 대화자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Bell 2015, p. 55)

Trigger	Speaker	Hearer
(1) Locutionary problem	Utterance poorly encoded (slurred speech, etc.)	Unable to process utterance (noisy, drunk)
(2) Linguistic rules	Error/slip with regard to rules of phonology, morphology, syntax, semantics (e.g., spoonerism, “misunderestimate,” use of nonplussed to mean underwhelmed)	Slip of the ear or lack of familiarity with linguistic rule
(3) Ambiguity	Introduces unintended ambiguity or intentional but not marked	Is unable to identify/decode ambiguity
(4) Problem with pragmatic force of utterances	Ill-/perlocutionary force not clearly communicated (e.g. too vague, indirect)	Unable to identify illocutionary force
(5) The form of the message (e.g., register, code-switching, rhyming)	Failure to perform formal elements appropriately (e.g., unable to voice a hillbilly in a recognizable way)	Failure to appreciate the form of the message (doesn’t know how a hillbilly talks)
(6) Humorous framing/keying	Does not use clear/appropriate cues to signal play frame	Unable to properly interpret cues
(7) Joke incongruity	Failure to construct an appropriate and well-formed incongruity	Failure to understand the incongruity of the joke
(8) Joke appreciation	n/a	Failure to appreciate the joke
(9) Joke (meta) messages	Does not clearly communicate additional messages; communicates inappropriate meta-messages	Failure to recognize any (meta) messages contained in the joke
(10) Humor support	n/a	Failure to join in the joking or provide appropriate feedback

일곱 번째 단계는 농담의 부조화와 관련 있다. 이 단계에서 유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언어적 요소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자가 개별 단어는 이해하더라도, 화자가 의도한 전체적인 유머 맥락을 놓쳐 유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부조화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청자가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청자가 화자의 농담을 수용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청자는 화자의 유머 시도를 인지하고 그 내용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담이 반드시 재미있다고 느끼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원인은 다양하다. 청자가 농담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유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화자와 유머 감각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서투른 방식으로 농담을 구사하여 청자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때 청자는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유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공격적 농담의 경우 청자가 자신의 즐거움을 감추려는 심리로 인해 웃음을 참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청자가 농담에 담긴 상위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부 유머는 타인에 대한 비판을 부드럽게 전달하거나 체면 손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청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화자는 “농담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상위 메시지를 부인할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는 화자가 청자로부터 적절한 반응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자가 유머를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재치 있는 대답을 떠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자의 미온적인 반응을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의사소통 상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유머의 실패는 단순히 언어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화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 행위(locutionary act)에 내포된 의미뿐만 아니라,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및 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 이를 둘러싼 틀 및 상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실제 대화에서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Bell(2015)이 제시한 분석 틀만으로는 실패한 유머의 문제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머의 실패에는 손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dilova와 Schröder(2022)는 독일인과 브라질인 간의 문화 간 의사소통을 분석하면서 목소리 톤, 손가락 동작,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 등의 요소가 유머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코드 스위칭은 대화의 맥락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였는데, 동등한 관계의 학생 간 대화에서는 유머를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강의 중 교수님을 향한 맥락에 부적절한 코드 스위칭은 유머의 실패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공유된 문화적 지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유머를 구사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유머의 사용은 서로 다른 문화 간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는 대화자의 지위와 성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연구의 세 번째 사례에서는 독일인 교수와 브라질 학생의 대화가 제시되었는데, 이 대화 프레임은 유머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화자 간의 사회적 위치, 관계, 역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실패한 유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4. 사회적 관계와 유머의 실패

4.1 대화자 간 친밀도가 실패한 유머에 미치는 영향

유머는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을 배제하는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유머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농담의 재미나 적절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대화자 간의 관계 및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Hay(2000)에 따르면 유머는 집단 간 경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집단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외집단을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머는 소속과 배제의 도구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호감을 느끼는 인물이 특정 유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유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강화되는 반면, 비호감 인물이 선호하는 유머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집단 소속감은 유머에 대한 반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Platow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코미디언의 유머를 듣더라도 내집단의 웃음소리를 인식하는 경우에 더 자주, 오랫동안 웃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유머 평가에 있어 개인의 독립적 판단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반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나아가 특정 유머가 재미있다는 판단이 개인의 의견보다 주류 문화의 반응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집단 문화가 증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에서는 유머를 통해 집단 내에서 특정 개인이 배제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Ducheneaut와 Moore(2005)는 화자의 유머가 집단 구성원에게 수용되지 않아 소외를 초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의 신입 회원 B는 “i have a 17 mag that could pop your head like a zit (p. 97)”라는 농담으로 동료들과 연대감을 형성하려 했으나, 다른 회원들은 긴 침묵으로 응답하며 최소한의 인정만을 보였다. 결국, 그룹은 B의 농담이 재미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배제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유머의 실패가 화자의 소외를 초래하는 동시에 기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B의 농담이 왜 청자로부터 외면당했는지, 유머 자체로 인한 문제인지, 그룹 규범과의 불일치나 전달 방식의 문제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못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Plester와 Sayers(2007)는 조직 내에서 통용되는 유머를 거부한 신입 사원의 사례를 통해, 유머가 집단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응자를 배제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한 여자 신입 사원은 동료들이 고객과 주고받는 유머를 부적절하고 모욕적으로 여기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어, 한 동료가 고객에게 “오늘 정말 재수 없는 새끼(wanker)처럼 행동하네요”라는 농담을 하자, 고객과 다른 동료들은 웃음을 터트렸으나 그녀는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며 조직 내에서 점차 고립되었다. 이 사례는 유머 실패가 단순히 개인의 취향 차이를 넘어서, 집단 내 소속감 형성과 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Bell과 Pomerantz(2016)는 학생들이 내집단에 소속되고자 의도적으로 유머를 이해한 척하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는 청자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충족하기 위해 유머에 대한 반응을 조절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변수가 유머 실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Bell(2009b, 2013)은 대화자 간 친밀도 및 사회적 거리에 따라 농담의 미이해에 대한 반응 방식이 달라짐을 밝혀냈다. Bell(2009b)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청자가 “이해가 안 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지인이나 낯선 관계에서는 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한편, Bell(2013)은 미국 대학 학부생 22명을 대상으로 집배원 농담(동의어 활용)²을 제시한 뒤, 이를 세 가지 사회적 관계 유형(친밀한 관계, 지인 관계, 낯선 사람 관계)의

² Every time the mail carrier comes to this one house, a huge dog comes bounding out and jumps on him—the dog even puts its paws on the mail carrier’s shoulders and licks his face, sometimes almost knocking him over. One day, the mail carrier arrives and walks into the yard, but there’s no dog; the next day, the same thing happens. On the third day, while the owner is in the yard, the slightly anxious mail carrier asks, “How’s (house) the dog?” and the owner replies, “I did.” (Bell 2013, p. 178)

상대에게 사용해보도록 하였으며 이로부터 총 278개의 반응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낮은 관계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는 청자가 농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거나 농담의 설명을 직접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낮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농담이 무슨 뜻인지 즉각적으로 질문하거나 솔직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친밀한 사이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펀치라인(punchline)의 반복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익숙하지만 아주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청자가 웃음, 간단한 감탄사, 혹은 “잠깐, 뭐라고?”와 같은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여 농담에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략은 대화 상대와의 관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인 평가가 용인되므로 전달자의 태도나 전달 방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낮은 관계에서는 그러한 개인적 평가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반응은 대화자 간 친밀도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유머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Priego-Valverde(2022)는 친밀한 관계의 화자 간에 가장 많은 유머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실패한 유머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녀는 친분이 있는 대학교 교직원들의 프랑스어 대화를 분석하며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참여자들이 서로를 더 잘 알수록 유머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커지며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실패한 유머를 해석할 때는 상호작용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2 지위와 성별이 실패한 유머에 미치는 영향

Bell(2015)에 따르면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교사 등 공적 인지도가 높은 화자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이들이 공적 맥락에서 시도하는 유머도 엄밀한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Bell(2015)은 버락 오바마가 제이 레노 쇼에서 자신의 서툰 볼링 실력을 “마치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과 같다”라며 자기 비하 유머로 표현하여 큰 비판을 받은 후 사과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반면,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대중의 이목을 크게 끌지 않는 인물의 경우에는 유머가 실패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업무 배정이나 성과 평가, 급여 인상 결정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패한 유머는 대체로 관대하게 용인된다. 따라서 비슷한 높은 지위라도 대화가 공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느냐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실패한 유머의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File과 Schnurr(2019)는 스포츠 선수와 코치가 공적 자리에서 부적절한 유머를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야구, 럭비, F1 분야의 선수 또는 코치들이 성적인 비유, 가정 폭력을 연상시키는 농담,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구사하여 일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례를 다루었다. 스포츠는 팬과 안티팬이

공존하는 만큼, 동일한 유머도 청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모두 남성 운동선수와 코치에 국한된 사례만을 분석했으므로, 여성 선수나 코치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머를 구사할 때 청중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향후 후속 연구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 내 리더십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리더의 유머 사용과 그 실패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Brooks와 Schweitzer(2017)는 유머의 성공과 실패가 화자의 자신감과 능력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화자의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리더가 상황에 맞지 않는 유머를 구사할 경우, 판단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유머 사용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undt 외(2022)는 리더가 의도적으로 유머를 구사하더라도 구성원에게 웃음을 유발하지 못하여 실패하게 되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는 실패한 유머가 리더와 구성원 관계의 질을 저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횡단적 설문조사와 비확률 표본 사용으로 인해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Miron-Spektor 외(2022)는 2,407개의 TED 강연을 분석하여, 강연자의 유머 실패가 청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TED 연사들은 철저한 연습과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설령 유머가 실패하더라도 전체 강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유머 실패가 조회 수, 영감 제공 평가, 리더십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TED라는 특수한 강연 환경에서의 사례이므로 일상적인 조직 내 리더의 유머 사용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여성 연사의 유머 시도가 더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여성 유머 시도에 대한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여성의 유머 시도에 대한 ‘통념’은 무엇일까? Kotthoff(2006)는 여성이 익살을 떨거나 주위 사람을 웃기는 행위(예: play the clown, fool around)가 ‘여성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Evans 외(2019)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유머를 사용할 때 받는 평가와 실패한 유머가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 지도자가 유머를 사용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유머 사용이나 실패 자체가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반면, 여성 지도자가 유머를 사용하면 ‘진지하지 않다’거나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여성 지도자의 유머가 실패했을 때 그 지위가 더욱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머 사용에 있어서 남성 지도자와는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관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지니는 성 고정관념을 반영하며 향후 다양한 직종과 조직 문화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의 유머 사용 차이는 Oesterle과 Schwab(202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 연구는 2017부터 2020년까지 Erasmus+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럽 4개국(스페인, 독일, 영국, 스웨덴) 출신 교사 15명이 회의하면서 나타난 실패한 유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교사들은 실패한 유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권위를 표현하거나 논의의 흐름을 전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해당 공동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여성들은 실패한 유머에 웃음, 화제 전환, 신중한 설명 제공과 같은 친화적 발화로 반응하며 팀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대화자 간 지위 차이가 뚜렷할 때는 상대방의 유머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동등한 지위의 화자 간에는 유머에 대한 반응의 폭이 다양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서 실패한 유머 사례는 의사소통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나라별 위계질서의 강약을 언급하면서도 화자의 출신 국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특정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유머 수용력에 미친 잠재적 영향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선호나 비선호를 보였는지 그로 인해 유머 대화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국적이 개인의 유머 성향에 미치는 암묵적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5. 실패한 유머에 대한 반응

5.1 청자의 반응

실패한 유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은 정중한 태도에서부터 공격적인 반응까지 다양하다(Attardo 2008). Meyer(2000)는 일반적으로 웃음을 유머 성공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청자의 웃음은 단순히 유머를 이해했음을 넘어 화자의 유머가 일정 수준 이상 성공했음을 인정하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청자가 전혀 웃지 않는다면 이는 농담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Norrick 2003). 이러한 실패는 청자가 유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웃음을 억제했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침묵이나 어색한 웃음은 화자의 유머 수행 방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Priego-Valverde(2022)와 Gironzetti 외(2016)는 유머와 웃음 사이의 연관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며 유머가 반드시 웃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웃음은 유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패한 유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다룬 초기 연구로는 Bell(2009a, 2009b)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Bell(2009a)은 사회언어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국 중산층이 유머로 인식할 수 있는 수수께끼 형태의 농담³을 제시하여 그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207건의 반응 중 91건(44%)이 직접적인 비난이나 조롱 등 무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담이 충분한 유머 효과를 만들지 못할 때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며, 청자가 화자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농담이 어린이 수준의 수수께끼에 가까워 성인 간의 자연스러운 농담 반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연구 참여자가 주로 젊은 중산층 미국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문화권이나 연령대로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³ Bell(2009a)의 연구에서 사용한 농담은 인종차별적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없어 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은 작았다. 그러나 청자가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패할 확률이 큰 편이었다. 다음은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농담이다: What did the big chimney say to the little chimney? - Nothing. Chimneys can't talk.

Bell(2009b)은 동일한 농담을 사용하여 실패한 유머에 대한 반응으로 짜증을 동반한 신음(groan), 가짜 웃음, 메타 언어적 언급, 감탄사, 수사적 질문, 비언어적 제스처 등 다양한 반응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 총 186건의 반응 중 약 47.3%가 부정적, 43%가 중립적, 9.7%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유발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 맥락에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유머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청자가 유머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고 또는 유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Priego-Valverde(2009)에 따르면, 청자가 유머를 인지하지 못하면 유머 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대화 참여자가 유머를 감지하였으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청자는 이해를 가장할지 아니면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청자가 화자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머리가 둔하거나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Bell(2013)에 따르면 이러한 유머 감각의 미비는 심각한 체면 손상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청자는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실패한 유머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식은 청자가 유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Bell(2013)의 연구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유머에 대한 반응 중에서 비언어적 반응이 36.7%를 차지하였고,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36.0%로 나타났다. 이어서 웃음(28.4%)과 침묵(24.8%)이 그 뒤를 따랐다. Bell(2013)은 청자가 농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는 것이 유머를 인지하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체면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Bell(2015)의 연구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호소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청자의 유머 이해 여부가 체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방식은 유머의 내용을 이해했으나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는 반응이다(Priego-Valverde 2009). 이 경우, 화자와 청자 모두 유머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유머를 이해했으나 그 내용이 무례하거나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공격적인 유머에 대해 청자가 혐오감을 표현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Bell, 2015). 유머는 종종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언어와 주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머에 쉽게 불쾌감을 느끼면 유머 감각이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머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유머 감각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Lockyer와 Pickering(2001)은 잡지 표지의 이미지에 불쾌감을 느낀 독자들이 편집자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자신이 평소 유머를 즐기는 사람임을 강조하려 애썼다고 지적하였다.

Bell(2009a, 2009b, 2013)의 연구가 인위적으로 제시된 농담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다루었다면, Ruiz-Gurillo(2021)는 자연스러운 대화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머 응답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스페인 본토에서 수집한 총 945분 분량의 구어 대화를 대상으로, 화자들이 최소 방해 원칙(Least Disruption Principle)을 준수하는지 아니면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유머 상호작용을 지속하려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대화 중 54%는 최소 방해 원칙을 지킨 반면, 나머지 46%에서는 유머 턴(turn)이 세 번 이상 이어지며 화자들이 유머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청자의 응답 유형은 복합적 반응(55.68%), 암시된 의미에 대한

반응(19.32%), 웃음(13.64%), 표면적 의미에 대한 반응(11.36%) 순이었는데, 청자의 반응이 복잡적일수록 유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머가 실패하였을 때 청자로부터 단편적인 반응(예: 무반응, 웃음 부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Sheikhan(2024)은 대화의 순차적 흐름(sequential trajectory)에 주목하여 유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화자의 유머를 감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유머 무시(disattending humor)’이고, 두 번째 유형은 ‘최소한의 반응: 대화 종료(minimal response: sequence closure)’로 웃거나 미소 짓지만 대화를 확장하지 않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최소한의 반응과 함께 진지하게 응답하는 ‘최소 반응: 진지한 응답(minimal response: serious response)’이며, 네 번째는 최소한의 반응과 함께 유머의 내용에 동의하는 ‘최소 반응: 동의(minimal response: agreement)’이다. 마지막 유형은 유머를 확장하여 대화를 더욱 활발하게 이끄는 ‘유머 확장(post-expanding humor)’이다. 이 분석 틀은 대화 맥락에서 청자가 유머를 수용하는 양상을 정교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청자가 특정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5.2 화자의 반응

유머가 실패했을 때 화자는 상황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청자를 달랠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Bell(2015)은 화자가 유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실패한 유머와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화자가 방금 자신의 발화가 유머였음을 밝히는 것이다. 만약 청자가 침묵하거나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을 때, 화자는 청자가 유머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리고, ‘농담이야(I’m just kidding)’와 같은 정형화된 관용구를 덧붙이게 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유머를 발화하였음을 밝히며 자신의 유머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Bell(2015)은 자신의 실패한 유머가 농담이었다고 밝힐 때 오히려 청자로부터 더 많은 웃음을 끌어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머를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화자의 체면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ell과 Pomerantz(2016)는 영어 유머 대화가 ‘농담, 휴지(pause), 화자가 발화를 농담이라고 밝히며 청자에게 웃도록 하는 것(You can laugh now.)’의 3가지로 구성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번째 전략은 화자가 청자를 구슬리며 유머가 재미있지 않으나며 긍정적인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친한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곤 한다. 네 번째 전략은 타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격적인 유머를 본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자가 느낀 심리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유머가 청자를 불쾌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상황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한편, 화자는 유머가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화자는 유머가 실패하지 않도록 특정한 주제 혹은 종류의 유머를 피할 수 있다(Bell 2009). 특히 문화마다 금기시되는 유머의 주제가 다르므로 화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특정한 종류의 유머를 피하게 된다(Petraki and Nguyen 2016). 또는 청자에게 이 농담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거나 유치할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할 수도 있다.

Williams와 Emich(2014)는 유머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과 그로 인한 후속 행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패한 유머는 화자에게 높은 부정적 정서, 죄책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며, 화자의 대인 정서 조절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유머가 실패한 후 화자는 자신이 유머를 구사할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이후 새로운 유머 시도나 긍정적 정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실패한 유머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화자는 화제를 전환하거나, 농담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게 된다. 이 연구는 유머 실패가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정서 조절 문제임을 보여주며, 화자의 대응 전략이 심리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연구는 자기 보고식 내러티브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회상 편향(recall bias)의 문제로 실제 경험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Priego-Valverde(2020)는 Raskin(1985)이 제시한 진지한 의사소통(BFC)과 진지하지 않은 의사소통(NBFC)의 개념을 기반으로 화자가 진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청자가 시도하는 유머에 어떻게 반응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주도권을 회복하며 흐름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자는 유머를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획득하려 시도하였으나, 부적절한 타이밍과 화자의 역할 유지 욕구, 대화의 협력적 성격을 침해한 까닭에 실패하였다. 한편 청자가 유머로 대화 전환을 시도할 때, 화자는 세 가지 전략을 동원하여 본래의 대화 흐름을 유지하였다.

첫 번째는 진지한 반응을 보이며 청자의 유머 시도를 묵살하거나 청자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자의 유머 개입을 무시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의 유머를 단절시키고 자신의 이야기 진행에 집중하며 진지한 이야기 모드(BFC)로 전환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명시적 거부로, 화자는 “진지하게 말해라” 또는 “농담 그만해”와 같은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해 청자의 유머 시도가 부적절함을 명확히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설정한 대화 규범과 스토리텔링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대응 전략은 대화에서 역할 분담과 협력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유머 실패는 단순한 이해 부족이나 웃음의 부재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하며 이때 화자는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대화의 본래 목적과 분위기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별 대화자의 성격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지 않아, 화자 반응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연구 사례에서 보고된 한 참여자의 외향적이고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성격이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및 기타 사회적 변수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내러티브 리뷰를 통해 다양한 유머 이론에서 정의하는 실패한 유머의 개념을 탐색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패한 유머가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 그리고 이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대응 방식을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유머의 실패는 단순히 언어적 메시지가 청자에게 인지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유머가 대화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용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머는 실패할 수 있었다.

실패한 유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화의 맥락 속에서 다층적으로 해석되었다(Zuo 2020).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화자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이끄는지에 따라 유머의 맥락도 달라졌다(Priego-Valverde 2022, Sheikhan 2024). 이러한 관점에서 실패한 유머는 단순한 의사소통 실패가 아니라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 및 대화자 간의 관계, 지위, 성별 등의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담화 표지자로 기능하였다(Bitterly et al. 2017, Pundt et al. 2022). 본 연구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향후 실패한 유머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특정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실패한 유머 사례를 더욱 폭넓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다양한 화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화 참여자의 특성, 관계, 상황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패한 유머가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ttardo, S. 2008. Semantics and pragmatics of humor.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2(6), 1203–1215.
- Attardo, S. and V. Raskin. 1991. Script theory revis(it)ed: Joke similarity and joke representation model.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4(3–4), 293–347.
- Bell, N. D. 2009a. Impolite responses to failed humor. In N. R. Norrick and D. Chiaro, eds., *Humor in Interaction*, 143–164.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ell, N. D. 2009b. Responses to failed humor. *Journal of Pragmatics* 41, 1825–1836.
- Bell, N. D. 2013. Responses to incomprehensible humor. *Journal of Pragmatics* 57, 176–189.
- Bell, N. 2015. *We are Not Amused: Failed Humor in Interaction*. Mouton de Gruyter.
- Bell, N. and S. Attardo. 2010. Failed humor: Issues in non-native speakers'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of humor. *Intercultural Pragmatics* 7(3), 423–447.
- Bell, N. and A. Pomerantz. 2016. *Humor in the Classroom: A Guide for Language Teachers and Educational Researchers*. Routledge.
- Bergson, H. 2008. *Laughter: An essay on the meaning of the comic*. Arc Manor. Originally published in 1900.

- Bitterly, T. B., A. W. Brooks and M. E. Schweitzer. 2017. Risky business: When humor increases and decreases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3), 431–455.
- Bogdan, S. 2014. Failed humour and its effects in conversation: A case study. *Speech and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Linguistics, Semiotics and Literary Science* 1(VI), 127–136.
- Brown, P. and S.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G. 2000. *Language Play, Language Learning*. Oxford University Press.
- Culpeper, J., D. Bousfield and A. Wichmann. 2003. Impoliteness revisited: With special reference to dynamic and prosodic aspects. *Journal of Pragmatics* 35, 1545–1579.
- Ducheneaut, N. and R. Moore. 2005. More than just “XP”: Learning social skills in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s. *Interactive Technology and Smart Education* 2(2), 89–100.
- Evans, J. B., J. E. Slaughter, A. P. J. Ellis and J. M. Rivin. 2019. Gender and the evaluation of humor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4(8), 1077–1087.
- File, K. A. and S. Schnurr. 2019. That match was “a bit like losing your virginity”. Failed humour, face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TV interviews with professional athletes and coaches. *Journal of Pragmatics* 152, 132–144.
- Freud, S. 1960.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Norton.
- Gironzetti, E., L. Pickering, M. Huang, Y. Zhang, S. Menjo and S. Attardo. 2016. Smiling synchronicity and gaze patterns in dyadic humorous conversations.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29(2), 301–324.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Speech Acts, 41–58. Academic Press.
- Hay, J. 2000. Functions of humor in the conversations of women and men. *Journal of Pragmatics* 32(6), 709–742.
- Hay, J. 2001. The pragmatics of humor support.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4(1), 55–82.
- Holmes, J. 2000. Politeness, power and provocation: how humour functions in the workplace. *Discourse Studies* 2(2), 159–185.
- Holmes, J. 2006. Sharing a laugh: Pragmatic aspects of humor and gender in the workplace. *Journal of Pragmatics* 38(1), 26–50.
- Holmes, J. and M. Marra. 2002. Over the edge? Subversive humor between colleagues and friends.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5(1), 65–88.
- Kaur, J. 201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English as a lingua franca: Some sources of misunderstanding. *Intercultural Pragmatics* 8(1), 93–116.
- Knopf, J. W. 2006. Doing a literature review.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9(1), 127–132.
- Kotthoff, H. 2006. Gender and humor: The state of the art. *Journal of Pragmatics* 38, 4–25.
- Ladilova, A. and U. A. Schröder. 2022. Humor in intercultural interaction: A source for

- misunderstanding or a common ground builder? A multimodal analysis. *Intercultural Pragmatics* 19(1), 71–101.
- Lockyer, S. and M. Pickering. 2001. Dear shit–shovellers: Humour, censure and the discourse of complaint. *Discourse & Society* 12(5), 633–651.
- Meyer, J. C. 2000. Humor as a double–edged sword: Four functions of humor i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y* 10(3), 310–331.
- Miron–Spektor, E., J. B. Bear and E. Eliav. 2022. Think funny, think female: The benefits of humor for women’s influence in the digital age. *Academy of Management Discoveries* 8(3), 354–374.
- Norrick, N. R. 2003. Issues in conversational joking. *Journal of Pragmatics* 35(9), 1333–1359.
- Norrick, N. R. 2004. Non–verbal humor and joke performance.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7(4), 401–410.
- Oesterle, M. and G. Schwab. 2024. Negotiating instances of failed humour in a transient transnational community. *The European Journal of Humor Research* 12(4), 124–144.
- Petraki, E. and H. H. P. Nguyen. 2016. Do Asian EFL teachers use humor in the classroom? A case study of Vietnamese EFL university teachers. *System* 61, 98–109.
- Platow, M. J., S. A. Haslam, A. Both, I. Chew, M. Cuddon, N. Goharpey ... and D. M. Grace. 2005. “It’s not funny if they’re laughing”: Self–categorization, social influence, and responses to canned laught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5), 542–550.
- Plester, B. and J. Sayers. 2007. Taking the piss: Functions of banter in the IT industry.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20(2), 157–187.
- Priego–Valverde, B. 2009. Failed humor in conversation: A double–voicing analysis. In D. Chiaro and N. Norrick, eds., *Humor in Interaction* 165–183. John Benjamins.
- Priego–Valverde, B. 2020. ‘Stop kidding, I’m serious’: Failed humor in French conversations. In S. Attardo, ed., *Script–based Semantics.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Essays in Honor of Victor Raskin*, 191–225. Mouton de Gruyter.
- Priego–Valverde, B. 2022. Failed humor in conversation: Disalignment and (dis)affiliation as a type of interactional failure.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34(4), 613–636.
- Pundt, A., J. Kutzner, K. Haberland, M. Algnier and T. Lorenz. 2022. You are simply not funn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failed humor in leadership. *Frontiers in Psychology* 13, 1–13.
- Raskin, V. 1985. *Semantic mechanisms of humor*.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Ruiz–Gurillo, L. 2021. Disrupted vs. sustained humor in colloquial conversations in Peninsular Spanish. *Journal of Pragmatics* 178, 162–174.
- Sheikhan, A. 2024. Responses to conversational humour: An analytical framework. *Journal of Pragmatics* 224, 57–73.
- Sukhera, J. 2022. Narrative reviews: Flexible, rigorous, and practical. *Journa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14(4), 414-417.

- Wanzer, M. B., A. B. Frymier and J. Irwin. 2010. An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or humor and student learning: Instructional humor processing theory. *Communication Education* 59(1), 1-18.
- Williams, M. and K. J. Emich. 2014. The experience of failed humor: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9(4), 651-668.
- Zuo, B. 2020. Why does humor fail or occur unexpectedly—an account of humor within an extended relevance theory. *Journal of Pragmatics* 160, 1-13.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한국어(Korea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 고등(Tertiary)